



Mission Story는 미션으로 100개의 APP를 만들어 가는 기업과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1월 22일 APP의 2019년 첫 제품 출하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전문기업 "A"사의 ILP-350WS로 반도체/디스플레이뿐 만 아니라 의료/바이오 산업에도 APP의 플라즈마 솔루션이 중요한 역할로 국면 하고 있다는 의미와 더욱이 APP만에 특수한 기술력으로 수주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에도 APP 플라즈마 솔루션이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차별화된 기술로 플라즈마 선도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Comet 社 에서 본사 내방하셨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Comet 은 70년 가까이, 메쳐의 핵심 부품인 진공 캐패시터를 생산하는 회사 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와는 실리콘 밸리와 미주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고객 대응을 위해 Comet의 실리콘 밸리에 는 Test Center (Lab One) 을 운영하고 있으며, 1주년 기념식 (2018년 10월) 에 맞추어 당사의 대기압 Ar 플라즈마 데모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번 2019년 Semicon Korea 에 일정을 맞추어 미리 당사에 내방 하게 되셨습니다.Paul 부사장과 (Jor, Kon), 그리고 한국의 김용태 지사장 (Comet Korea GM) 과 함께 진행 된 미팅에서는 실리콘

밸리에 설치된 데모기로 다양한 솔루션과 고객들에게 시연 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내에는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반도체 및 OLED 시장 공략이 진행 되고 있으며, Comet USA의 담당자 인 Kuldeep 씨는 인도에도 전격 방문하여, 당사의 플라즈마 기술과 적용가능 Application 을 소개 진행 하실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사는 보다 깊은 관계를 문서화 하고 가시화 하여, 3월에 있을 Semicon China 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 하였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와 기존의 데모, 수주 활동 등 양사간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서, 미주 시장 뿐 아니라, 아시아 까지 협력 방안이 확대 됨에 따라, 당사는 기술과 적합한 장비를 안전사양에 맞춰, 성실히 준비해 나갈 것을 기약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SEMICON KOREA 2019 참관

CONNECT * INNOVATE * COLLABORATE

1/23~25 3일간 Semicon Korea 2019가 COEX에서 개최

역대 최대규모로 펼처진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469개 업체가 참여하여 최신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전세계 120명의 반도체 전문가 발표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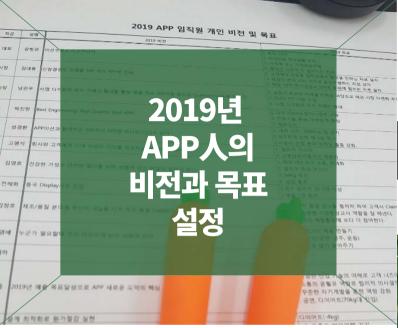
APP에서도 각 부문별로 참관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소재 및 부품, 관련장비에 대한 최신기술 동향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자사 임직원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플라즈마 전원장치업체인 COMET을 비롯한장치협력사와 주요 고객사간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사업전략과 파트너십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전시회 였습니다

앞으로도 APP는 반도체 뿐만아니라 OLED에서도 당사의 플라즈마 솔루션을 접목하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대기압 플라즈마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고객의 Needs에 맞는 강력한 DSC(Dry Surface Control) 기술을 적용한 Ar 플라즈마 솔루션을 개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APP 임직원들이 지난 2018년 개인별로 세웠던 비전과 목표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미션데이에 첫 실행하여 2번째 이루어진 이번 성과발표는 처음보다 목표 성과가 좋았으며,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더라도 목표 달성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금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직원 목표를 달성하여 뿌듯한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꼭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새롭고 뿌듯한 시간이였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세팅을 한 후 내년에는 더욱 발전되어 있는 에이피피와 그 안의 임직원 들이 되어있기를 바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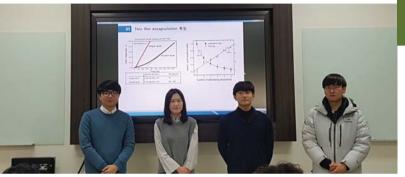
> 목표 달성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금 도전하겠다는 의지



미션 실천의 하나로 시작한 대학생 인턴활동

인턴 연구과제 발표

APP Mentoring Internship



2019년 1월 30일 APP 제6기 인턴십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준비해온 연구과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인턴십은 기술연구소와 제조기술팀/영업부에서 운영되 었으며,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실무 경험과 전공 분야에서 벗어나 넓은 견문을 접할 수 있어 앞으로의 더 많은 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느끼고 비록 플라즈마가 디스플레이분야 의 작은 공정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접하면서 전반적인 디 스플레이 OLED 공정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디스플레이 OLED 공정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



에이피피에서 전장 및 PLC 하드웨어 구성을 알아보고 회로의 차이점을 찾아보며 APP 플라즈마가어떤 방식으로 제어하는 지를 연구하면서 기존에 배운 컴퓨터공학에 플라즈마, 전장 설비 등의 분야를 접목시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견문이 넓어졌고 기술력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낌

"부족한 저를 지켜봐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 매우 감사드립니다.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4학년에 진학하기 전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직무에 대하여 심도 깊은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무기화학과, 무기공업

화학과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플라즈마라는 분야를 전공에서 간단히 접한 경험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던 분야였는데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APP가 제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짧은 한 달이었지만 잊지 못 할 소중한 인턴 생활을 경험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조직문화에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진출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이피피에서의 한달간의 인턴 기간동안 플라즈마를 이용한 식각, 증착 등을 직접 장비를 운용해보며 샘플을 제작해보고 또 플라즈마 장비의 불안정성 및 최적 공정조건 탐색 등의 공정 엔지니어가 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해보며 무엇이 중요한지, 보고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미래의 우수한 공정 엔지니어가 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달동안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하시는 열정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제조공정 수업 중 플라즈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플라즈마는 반도체뿐 아니라 아토피 치료에도 쓰이는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배운 진공 플라즈마가 아닌 대기압 플라즈마를 다룬다는 점이 흥미로워 인턴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연구소팀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에서의 기본상식은 물론 장비 활용법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 또한 직접 실험을 계획하고 결론을 내리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스킬이 더 필요할 것으로 느껴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며 보안할 계획입니다. 하루를 한 달처럼 쓰라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무나 지식까지 전부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서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현장실습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턴들을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



에이피피 1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월 22일 기념행사 및 2019년 초석을 다지는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하루 동안 진행 되었으며, 오전일정으로 각 팀 별 2019년도 목표 발표 및 O&A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가벼운 레크레이션을 겸하면서 무겁지 않고 활기찬 분위기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에이피피 13주년을 자축하며 케잌 커팅 및 임직원들의 메시지를 나누며 에이피피 100주년을 기약하는 뜻 깊은 자리로 시작하여 즐거운 몸풀기 게임과 야외에서 족구를 즐기며 워크샵의 알찬 하루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일정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에이피피의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진행되었던 행사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에이피피의 하나의 발자취로 남을 것입니다.















DSC(Dry Surface Control) for OLED Process 홍보컨셉으로 참가

신규 시장 개척 **2019 FPD CHINA**

2019. 03. 20~22 Shangha, SHIEC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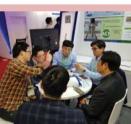
3월 20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2019 FPD CHINA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APP에서는 DSC(Dry Surface Control) for OLED Process 홍보컨셉으로 참가하여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장치 및 나노기술 프로세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Comet, Inspiraz, ABC등 구체적 협업 전략을 도모 할 예정이며, BOE 엔지니어와의 연이은 미팅으로 APP 제품을 적극 검토하기 로 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소재 및 부품, 관련장비에 대한 최신기술 동향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소재 및 부품, 관련장비에 대한 최신기술 동향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좋은 기회











이제 플라즈마 공정은 어렵고/무겁고/비싼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과 앞으로의 방향을 APP가 리드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PEN_JET 미니토치 개발 리뷰

고객 요구사항 적극 반영

3월 새로운 제품을 라인업 하였습니다.

종래 대기압플라즈마가 대형사이즈, 대면적의 한쪽방향으로 치우쳤던 상황에서 응용분야의 확대를 기하고,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이 아니면 적용이 어려웠던 플라즈마 공정을 비교적 적은 투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제품을 개발 보급하므로써 대기압 플라즈마의 저변확대에 부응코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 Low cost
- Light weight
- Easy operation
- Small area plasma spot





KPVS & KANC

한국 태양광발전학회 & 한국나노기술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3월 25일 한국태양광발전학회(KPVS)의 윤세왕 박사와 한국나노 기술원(KANC)의 박원규 박사가 당사를 방문하여 향후 ㈜에이 피피가 국가과제 및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산 학 연 공동연구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국가경쟁력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세왕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중 RF 트랜지스터와 집광형

태양전지분야에 탁월한 능력 을 발휘하였으며, 미국에서 AMONIX를 창업, 운영 하였으 며, 2018년 IEC(국제기술전기 위원회)에서 국제 표준개발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문가로 선정되었다.

박원규 박사는 아주대 이재진 교수진과 함께 국내 최고 광전자 효율(37.4%)를 달성한 3중 접합태양전지를 개발하 였으며, 2017년 국제 표준리더 로 산업통상지원부 장관표창 을 수상하였고 현재 KANC에서 서울대한양대성균관대이주대 경희대단국대와한국과학기술원 (KIST),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각자 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신앙경영을 중심으로 한 경영방침을 함께 공유하며 APP가 어떤 회사로 발전되었으면 좋은지? 서로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어주면 좋을지?를 허심탄회하며 나누며 공동의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기업문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필요

2019년 새로운 출발선에서 APP는 "공감과 배려"라는 화두로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12년 동안 창업 이후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발 돋움 시켜온 강방권 대표이사와 국내외 반도체 및 나노산업에서 30여년간 다양한 경험을 쌓은 김대용 사장의 경영참여로 무엇보다도 기업문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1월 16일 리더십의 대가로 삼성을 비롯한 수 많은 대기업 임직원에게 경영수업을 코칭해 주셨던 아주대학교 조영호 교수님 을 모시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였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APP가 어떤 회사로 발전되었으면 좋은지? 서로에게는

공동의 건센서스를 도출하는 뜻 깊은 시간





2019년 새로운 출발선에서

APP는 "공감과 배려"라는 화두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 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것이나 마태복음 7:7"



We create value of 10 dollars from a technology of 1 dollar value. We use 10 dollars to make it worth of 100 dollars.

> 我们用1美元的技术,创造10美元的价值 我们使用10美元,产生100美元的效益

1달러의 기술로 10달러의 가치를 만들고 10달러를 100달러 가치로 쓰는 회사